

오랫사 할렐루야 교회 선교편지

‘**황** 디아나’라는 고려인 자매가 있습니다. 7년 전에 전혀 교회를 모르는 고려인 여인이 두 자녀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15세 디아나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작년 10월에 전도사님의 아들과 결혼할 때까지 교회에서 생활했던 자매입니다. 교회 2층 방에서 다른 청년들과 생활하기도 했지만, 거의 나머지 2년 동안은 혼자 교회에서 자고 생활했었습니다. 아주 쾌활하고, 성격이 급한 데다가 말도 빨라, 저에게 눈치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영리한데다가 남에게 지기 싫어하여 공부도 남달리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에 디아나가 회계학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 번 교회 청년들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디아나 졸업식은 좀 감회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학은 졸업하기 전에 실습기간이 있는 데, 디아나는 은행에서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인이라 실습으로 그칠 줄 알았는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는 일 같지만,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시원한 소식이었습니다!

고려인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은행과 같은 회사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고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려인 청년들은 결국 부모님의 반찬가게나 농사를 짓기 위해 발로 향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 청년들, 또 그것을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이며 묵묵히 시장과 발로 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디아나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순간 얼마나 통쾌하고 감사했는지요!!!

디아나의 졸업식을 보면서 오랫동안 할렐루야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2만여명의 고려인들의 마지막 소망이며 등대가 되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디아나는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조건으로 주일 예배는 물론, 아침 기도회, 수요일 기도회를 억지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지금, 디아나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맡은 복음의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고려인 교회를 맡은 후부터, 주님께서는 복음의 고려인 청년들이 이 땅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아나의 졸업식은 남달라 보였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 (롬9:3)

※ 오랫사 할렐루야 교회를 도와 주십시오! ※

얼마 전에, 오데사 시로부터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석 달 동안 소식이 없었던 이유는 할렐루야 교회 건물을 제삼자와 계약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제야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름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아무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출34:24) 비로소 지난 주에 12,000불 함께 키예브 담당 관공서에서 계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절차는 키예브 정부의 승인으로 오랫동안 시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랫동안 재산관리 위원회에서 임대 결정을 받고, 3개월 후 위원회에서 매입이 결정됨으로 감정평가원에서 감정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통레상 300,000\$(1,000\$/m²) 안팎으로 예상합니다.

너무나 벅찬 금액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 지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반듯이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도와주십시오!